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5. Vol. 16, No. 2, 29~39.
https://doi.org/10.22987/jifso.2025.16.2.29

고립·은둔청(소)년들의 일상생활 회복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모형탐구

– NPO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마주침과 얽힘에 관한 관계망 형성기 –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고립·은둔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NPO 지원 사업 모델을 탐색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 증가해가고 있는 고립·은둔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포함한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할 시킬 수 있는 요인들과 서비스 모형을 창출해보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고립·은둔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현황, 관련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 연구(case study)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PO 고립·은둔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모형 설계를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성 내용을 검증해본 결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 1:1 전담 활동 서비스를 통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행동 변화 증가, 부정적 행동의 감소, 부모 부정적 정서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들의 부정적 정서 변화와 존중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곱 가지 제언과 "지역사회 다함께 모형(청소년, 청년, 고립, 은둔, 가족유형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예방적접근 차원과 서비스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기존 서비스 체계 최대 활용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방향성과 구조)"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고립, 은둔, 회복지원, 지역사회, NPO(Non-Profit Organizations)

본 논문은 2025 SCU 사회복지대학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임.
* 주저자: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교수연구동 503호
/Tel: 02-944-5131/E-mail: kimyoonna@daum.net

Ⅰ. 서론

202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립·은둔 청년들은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청년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김성아, 2023). 현재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는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한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기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의 이들에게서 제로 GDP는 당면한 문제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복지 재원 증가는 마이너스 GDP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은 연간 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보고도 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790&pWise=mSub&pWiseSub=I1#visualNews 보도자로 참고).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1,360명 정책대상자 발굴하여 1,903명을 즉시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졌던 서비스는 주로 교육, 상담, 촉진(전환) 등의 사업들로 단발성 지원 사업에 불과하며 상호 연계성도 거의 없는 분절적인 형태로 지속성도 부족한 채 1년도 안 되는 단기성의 서비스를 통해 효과성과 성과지향성을 강요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까지 은둔과 고립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해법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곽미선·박지영(2024)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총 101개의 논문에 대해 일반적 특성, 개념 및 측정도구, 주제에 따른 특성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의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고립 연구와 은둔 연구 모두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2021년부터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이슈는 사회복지학뿐 아니라 의학과 심리학,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양한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상자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교육, 상담, 촉진(전환) 등의 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대상자에 대한 개입 초기 서비스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즉 MZ 세대로서 타자와의 관계 형성 실패에 따른 정서적 단절의 불안과 대인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집안에만 있는 대상자에게 집 밖으로 바로 나와 집단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최정아, 2024). 이러한 서비스들이 집(방) 밖에 나올 수 없는 당사자들에게 사업 대상으로 개입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서비스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공적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들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서비스 모형을 구현해 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립·은둔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NPO 지원 사업 모델을 탐색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 증가해가고 있는 고립·은둔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포함한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할 시킬 수 있는 요인들과 서비스 모형을 창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고립·은둔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고립·은둔청소년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일본에서 은둔형외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세상과 접촉을 끊은 채 집에서만 지내는 현상을 일컫는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로 알려졌다(김재열, 2024), 여인중(2005) 박사는 친구없이 3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일컬었으며 2023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기아동청년의 범주에서 고립·은둔 대상을 정책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용어 정의는 정하지 못하였다.

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에서는 많은 조례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자신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혹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서울시, 용인시, 안양시 등).

이러한 고립·은둔청소년은 활동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심리적,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김재열, 박덕명, 오상빈, 2024). 정서적 단절(부모나 가족, 극소수의 타인과 대화 가능), 매우 폐쇄적, 방이나 집에서 활동, 혼자 식사, 낮에 자고 밤에 활동, 경제활동 하지 않음, 사회기술 낮은 특성들이 있다. 또한 대인기피→ 의사소통→ 우울, 불안, 강박→ 인지부조화→ 분노조절의 반복, 낮은자존감, 효능감, 정체성→ 무망감→ 무욕구→ 네 탓→ 낮은 사회기술의 반복 등의 심리적 특성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높은 자존심과 낮은 외모의 자기 평가가 이어진다.

2. 고립은둔청(소)년의 현황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19~39세의 고립과 은둔에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의 이유 1순위로는 취업 실패(24.1%), 2순위 대인관계(23.5%)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도 전체 청년 평균 6.7점에 비해 고립·은둔청년은 평균 3.7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 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약 7조 원 추산되며(구직 활동 포기 손실 비용 6조 7천억 원, 복지 비용 2천억 원 추산) 고립에 빠져있는 청년(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로 외부외출이 어느 정도 있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은 54만 명이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외출 거의 없이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거주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형 청년은 24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아, 2023).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초로 할 때,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은 5.2%로 13~18세 청소년 인구 약 270만 명에 적용 시 약 14만 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울시(2023)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립은 9만 3천명~9만 6천명, 은둔은 3만 3천명~3만 3천 7백 명으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은 12만 6천명~12만 9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고립 약 2.2%, 은둔 약 1.2%로 서울시 거주 청년 중 고립·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4.5%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립·은둔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조례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4개 주요 과제로 ①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②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③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④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 외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24~25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전담창구를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선도모델 마련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가족돌봄 전담 5명, 고립·은둔 전담 8명) 배치되어 발굴과 사례관리 수행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고립·은둔 사례관리 주요 지원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비고
초기 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마음 건강	자가 진단
일상 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등 *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관계 형성
가족·대인 관계 회복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은둔 특화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부모 참여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 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대인 접촉 소통 기술
일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사회 복귀 시도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되었고 2024년 5월에는 고립·은둔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첫 전국단위 실태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림 1] 여성가족부의 고립·은둔 지원 체계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139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외출 및 고립 정도, 일반적인 생활 실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전담기관인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 사회적 고립 척도를 바탕으로 활동형고립, 고립형, 은둔형으로 분류해 일상회복과 관계망 형성, 직무 역량 강화등 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은둔형외톨이 전문 지원센터인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22년에 설립되어 은둔형외톨이 지원네트워크 구축, 은둔형외톨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은둔형외톨이 전문 교육과정, 은둔형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은둔형외톨이 수용성 강화, 인식강화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중이다.

한편 김재열(2024)에 의하면 제정된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 조례는 약 360여건으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2> 고립·은둔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키워드	관련 지자체	조례 수
은둔형외톨이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안동시, 고양시, 진주시, 광명시, 순천시, 의왕시 등	58건
고립청년	밀양시, 원주시, 청주시, 나주시 부평구, 태백시 등	161건
은둔청년	하남시, 도봉구	2건
고독사 (청년을 포함)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금정구, 논산시, 청도군,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등	102건 (규칙 12건)
사회적고립	서울특별시, 경기도	2건
고립·은둔	하남시, 화성시, 안산시, 부천시, 도봉구 등	32건
고립·은둔 (청소년 포함)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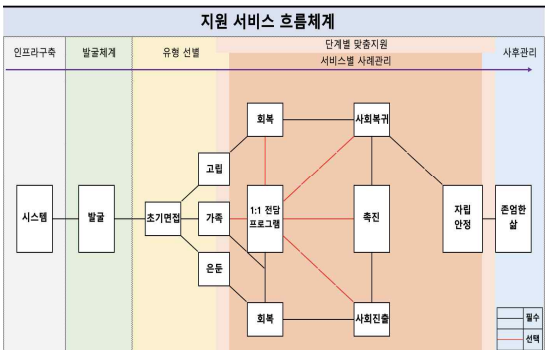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례 연구(case study)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은 특정 현상을 이해하고, 이론적이고 실무적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Lisa, 2008; Austin & Seitanidi,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지원 받아 실행한 NPO 기관의 2차 자료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차 자료로는 사업계획서, 실적보고 및 정산서, 만족도 조사, FGI 분석내용, 포럼 외부발표 자료 등이었으며 2차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담당자와의 유선연락을 통해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고립·은둔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모형 설계

본 연구는 고립·은둔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NPO 지원 사업 모델을 탐색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고립·은둔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시킬 수 있는 요인들과 서비스 모형을 살펴보고자 실제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NPO 기관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 기관은 지역사회 내 고립·은둔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지역에 다양한 참여자가 함께 연대하여 이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문위원회 조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활동가 양성, 발굴 체계 구축과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회복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회복과 사회기술 향상을 통한 사회참여 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2] 서비스 지원 체계

즉 지역사회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스템화 →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한 대상자 발굴 → 대상자 모집에 따른 유형 선별 → 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사회진출 및 사회복귀 → 자립 안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라는 지원서비스 체계 모형을 시도하였다.

[그림 3] 1:1 전담 활동 서비스 모형

또한 주요 활동으로 또래 전담 활동가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1:1로 매칭하여 전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립·은둔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일상생활에 회복을 도움을 주고자 10회차 대면 및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2. 사업 효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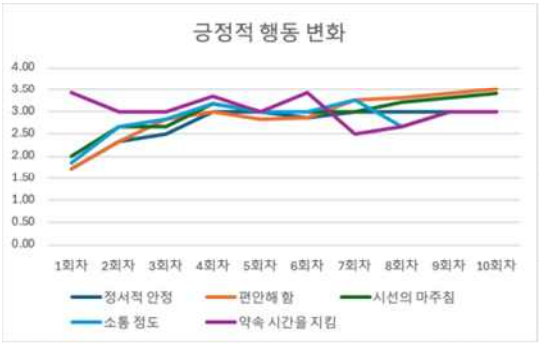
첫째, 본 사업의 인프라 조성의 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지역의 전문 활동가 모집과 양성 교육, 발굴 체계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모집, 부모인식개선 세미나를 통해 지역 내 고립·은둔 문제를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당사자 부모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자녀의 개입이 가능한 지역 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해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둘째, 전담 활동 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4명은 서비스 기간 중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중 1명의 경우 해당 활동가의 진로 적성 검사와 이력서 작성 등을 도왔고, 3명 경우 활동 간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이를 지지함으로써 유지하도록 도왔으며, 서비스 이후 1명의 경우 지역 일자리 구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본 단체와 일경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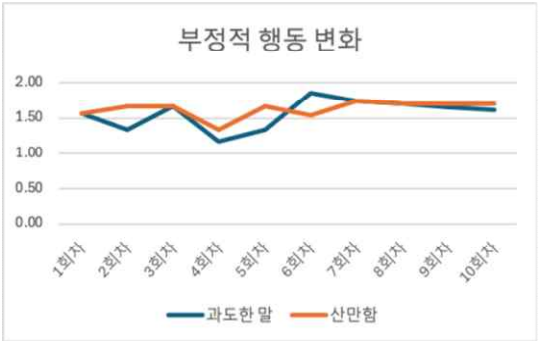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시범 사업에서 대상자들의 관계형성, 정서적, 무망감 등의 변화에서 높은 수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이는 전문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행동변화>

참여자들은 긍정적 행동 변화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2.5 이상 3.5에 육박하는 다소 좋아졌거나 안정적인 유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부정적 행동 변화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개선되었는데 처음 탐색과 라포 형성 과정인 2~3차에 대상자들의 과도한 말과 산만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자 스스로 강점과 장점을 찾아가는 활동인 5회차 이후 지속적인 성취 경험과 확정성 있는 활동을 전개해 가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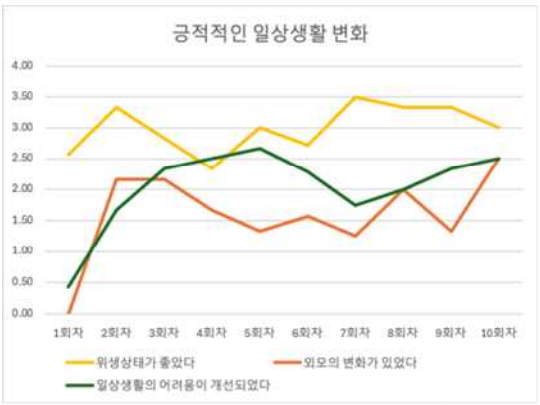


[그림 4] 참여자들의 긍정적 행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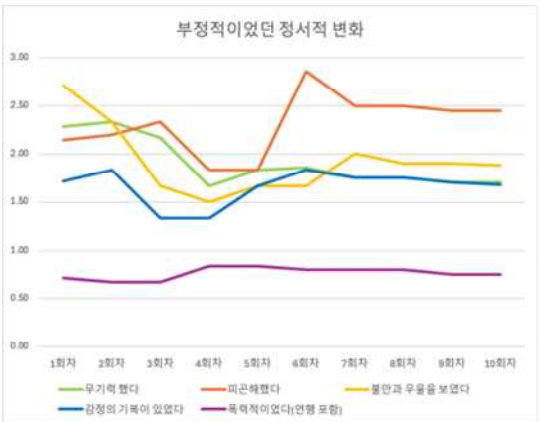
[그림 5] 참여자들의 부정적 행동 변화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일상생활 변화는 자기조절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서적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흔히 지닌 무망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관계나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준다 할 수 있다.



[그림 6]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일상생활 행동 변화

참여자의 긍정적인 일상생활 변화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2.5 이상 3.0으로 다소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일상생활 행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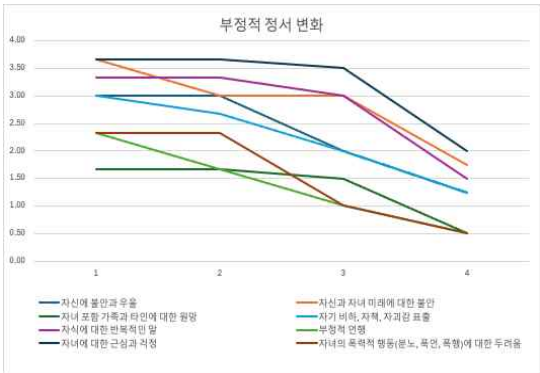
부정적이었던 정서적 변화도 처음에는 점수가 높았다가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긍정적인 무망감 변화에서 참여자들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3.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좋아졌음을 나타냈다. 또한 긍정적인 관계시도 변화에서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3.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 관계 시도의 욕구를 드러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무망감 변화

[그림 9]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관계시도 변화

본 사업에서 부모의 정서적 변화는 자녀의 은둔과 고립에 따른 어려움이 부모 스스로에게도 직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부모들의 부정적 정서 변화는 대부분 2.5 이하로 좋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자녀에게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활동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통해 부정적 정서 변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척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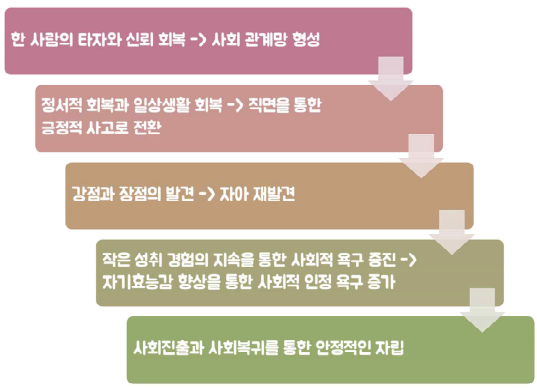
[그림 10] 부모들의 부정적 정서 변화

참여자 부모들의 존중에 대한 부정적 태도 변화는 2.0 이하로 개선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사회성이 부족한 자녀들이 당장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성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1] 부모들의 부정적 정서 변화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과 평가 관련해서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타인이 있어 안정감을 느끼고, 집 밖으로 나가서 타인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타인과의 관계 회복 이루어짐과 은둔형 고립 상태를 스스로 지각해 벗어나려는 의지가 생김',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들과 경제적 독립, 오랫동안 계속해서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은둔·고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요인 찾기'로 수렴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여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차원에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협력 네트워크 내 조직들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이들에 대한 지역에서의 관심, 격려가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자기변화와 더불어 다시금 사회로 재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참여자들의 변화 단계

Ⅴ.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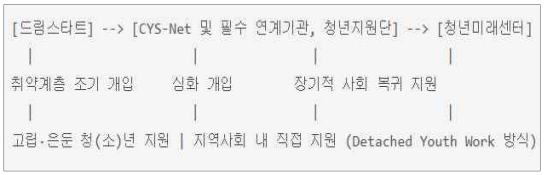
본 연구는 1년에 걸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으로 제공한 NPO 사례를 탐색하여 보다 표준화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형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고립·은둔 현상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및 지속성 확보가 요구된다. 고립·은둔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 개입을 넘어 장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형 지원모델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CYS-Net, 청년미래센터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연속성과 중복의 최소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Detached Youth Work 방식이 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상 기관 방문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확대하여 직접 만남과 관계 형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이 시급하다. 관련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대상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여 39세 연령까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심리·복지·고용 분야 등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생애주기별·단계별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에 이르는 각 시기별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개입과 사회복귀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다함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청소년, 청년, 고립, 은둔, 가족유형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예방적접근 차원과 서비스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기존 서비스 체계 최대 활용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1차 드림스타트+2차 CYS-NET(필수 연계기관 확보, 1차 정부부처 지원기관, 2차 공적 연계 기관, 청(소)년 지원단)+청년미래센터의 전달체계를 연결하도록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차 지원체계: 드림스타트를 통한 취약계층 조기 개입
- 2차 지원체계: CYS-Net 및 필수 연계기관, 청(소)년 지원단을 통한 심화 개입
- 3차 지원체계: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장기적 사회 복귀 지원

또한 인력 지원방식은 Detached Youth Work 방식을 적용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이 스스로 기관을 찾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은 이러한 통합적, 지속적 접근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림 12] "지역사회 다함께" 모형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모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고립·은둔의 양상에 대한 세밀한 비교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본인의 경험과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다각적 연구설계의 필요,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 및 표준화, 장기 추적조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고립·은둔 상태의 변화 양상 분석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열 (2024). 한국형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실태,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 - 저출산인구절벽의 사각지대, '다음 세대의 위기를 논하다' 그 첫번째 연대, 발표자료

사람을세우는사람들 더유스 (2024). 도봉구 은둔, 고립 청년 일상생활 회복지원 프로젝트 "E.X.I.T", 사업제안서

사람을세우는사람들 더유스 (2024). 도봉구 은둔, 고립 청년 일상생활 회복지원 프로젝트 "E.X.I.T",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정하림, 김진언 (2023).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과 생활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서울: 서울연구원

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202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곽미선, 박지영 (2024). 사회적 고립 및 은둔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청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8), 195-218.

최정아 (2024). MZ세대의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5(3), 01-23.

Austin, J. E., & Seitanidi, M. M. (2012). Collaborative value creation: A review of partnerships and alliances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1*(5), 727-748.

Lisa, A. (2008). Community Engagement and Youth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2), 123-14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1).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278&act=view. 2025-01-07 자료 얻음

투고일자: 2025. 4. 30.
심사일자: 2025. 5. 27.
게재확정일자: 2025. 6. 12.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5. Vol. 16, No. 2, 29∽39.
https://doi.org/10.22987/jifso.2025.16.2.29

Exploring a Community-Based Model for Supporting the Daily Life Recovery of Socially Withdrawn Youths: Network Formation through Encounters and Entanglements in an NPO Case Study

YunNa Kim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a community-based support model develop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NPOs) for socially withdrawn youth, with the goal of addressing their psychosocial challenges and fostering stronger family and community integration. Employing a case study methodology, the research analyzes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relevant policies, and local ordinances pertaining to socially withdraw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one-on-one support services led to increased positive behavioral changes and decreased negative behaviors among participants, along with improved emotional responses and attitudes among their parents. Based on these outcomes, the study proposes the "Community Together Model," which emphasizes a preventive, needs-based approach, minimizes service redundancy, and ensures continuity through the integration of existing support systems such as Dream Start, CYS-Net, and Youth Future Centers.

Keywords: Isolation, seclusion, recovery support, community, NPO